

리우 영광 다시 한번... “도쿄 금메달로 한국골프 빛내겠다”

여자골프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각오

고진영(26)과 박인비(33), 김세영(28), 김효주(26)가 7월 개막하는 2020 도쿄 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박인비는 30일 매니지먼트 회사인 와우매니지먼트 그룹을 통해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은 나의 큰 꿈이자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며 “특히 리우올림픽 이후 5년 동안 좋은 기량을 잘 유지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자골프는 1900년 올림픽 이후 116년 만인 2016년 리우 대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박인비가 바로 그 영광의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세계 랭킹 3위 박인비는 “한국 대표팀은 선발되기 어려운 자라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임하겠다”며 “첫 올림픽 때는 경험도 없었

박인비 “금메달 꼭 따서 국위 선양”
고진영 “어렵게 잡은 기회 살릴 것”
김세영 “리우 경험에 자신감 커져”
김효주 “평생 꿈꿔왔던 소원 이뤄”

고진영도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5년 전 경험을 토대로 부담감을 덜어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LPGA 투어에서 메이저 7승을 포함해 21차례나 우승한 박인비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과 1년에 다섯 차례 열리는 메이저 대회는 기회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은 선수 전성기와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 기회도 적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이 생긴다”고 올림픽과 일반 대회의 차이를 설명했다.

고진영은 매니지먼트 회사 YG 스포츠를 통해 “많은 선수가 나가고 싶어하는 올림픽 출전”이

라며 “이런 기회를 쉽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나를 동안 도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올림픽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진영은 “선수들이 개인전으로 출전하지만, 왼쪽 가슴에 태극기 달고 대회에 임한다”며 “많은 분이 응원과 힘을 보내주신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2016년 리우올림픽 때 좋은 경험을 했다”며 “올림픽 출전을 통해 자신감이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리우 올림픽에서 공동 25위에 올랐던 그는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목표였다”며 “리우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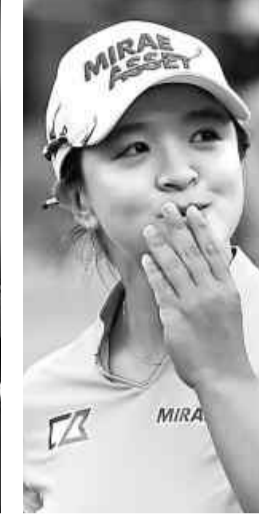
김효주는 매니지먼트 회사 YG 스포츠를 통해 “4년 전에는 운동선수로서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TV로만 봤다”면서 “평생 꿈꿔왔던 소원을 이룰 수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데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김효주는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PGA 우승 해리스 덕에... 1만7000원 베팅으로 16억 ‘대박’

1만7000원 베팅으로 16억원 대박.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8차 연장 끝에 우승한 해리스 잉글리시(미국) 덕분에 16억원이 넘는 잭팟을 터트린 사례를 30일(한국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인공은 지난 22일 영국 스포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미화 15달러 50센트(약 1만7000원)의 돈을 걸었다.

이 사람이 베팅한 상품은 6종목 스포츠의 승패를 모두 알아맞히면 건 돈의 최고 9만396배를 돌

려받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주인공이 베팅한 내용은 이렇다.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크로아티아가 스코틀랜드를 이기고, 잉글랜드가 체코를 꺾는다.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시니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 넬리 코르다(미국)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BMW 인터내셔널 오픈에서 우승한다. 잉글리시가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

주인공은 “스트리커, 코르다, 그리고 호블란의

우승은 어느 정도 확신했는데, 사실 잉글리시의 우승은 확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잉글리시는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연장전에 합류했고, 크레이머 히콕(미국)과 7차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8차 연장에서 끝내기 버디를 터트렸다.

잉글리시의 우승으로 베팅한 돈은 무려 136만 달러(16억2830만원)가 돼 돌아왔다.

잉글리시가 받은 우승 상금 133만2000달러보다 더 많다. 그는 “연장전 버디 퍼트가 들어갈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복싱 챔피언 강종선 3일 고향에서 타이틀 방어전

WBO 오리엔탈 페더급 1차 방어전

광주 출신 복싱 챔피언 강종선(20·사진)이 고향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갖는다.

WBO 오리엔탈 페더급 챔피언인 강종선이 오는 3일 오후 2시 송원대학교 특설링에서 극동서부 체육관 출신 양성영을 상대로 1차 방어전에 나선다.

WBO 오리엔탈 페더급 1차 방어전이 광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강종선은 지난 1월 오리엔탈 페더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 당시 챔피언 결정전(12라운드)에서 이남준(37) 전 세계권투협회(WBA) 페더급 아시아 챔피언을 상대로 3-0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강종선은 현재 통산 14전 12승 2무, 무패행진을 기록하며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그는 현재 박병준 전 광주시복싱협회장이 운영하는 진단건설에 입사 후 전일복싱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또 만났네 ‘신·박’한 대결

신진서-박정환, 2년 연속 쏘팔코사놀 결승 격돌...5일부터 5번기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과 2위 박정환 9단이 제2기 쏘팔코사놀 최고기사결정전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신진서와 박정환은 다음 달 5일부터 대회 도전 5번기에서 우승을 다툰다. 두 기사는 2년 연속으로 최고기사결정전에서 만난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는 신진서가 박정환을 3-0으로 완파하며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 대회는 전년도 우승자와 도전자가 결승 대국을 벌이는 도전기다. 도전기는 2016년 1월 제59기 국수전 이후 5년 6개월 만에 부활했다.

당시 국수전 타이틀 보유자는 박정환이었다. 박정환은 2년 연속 국수전 우승에 성공했지만, 국수전이 잠정 중단되면서 타이틀 방어 기회를 잃었다.

이번에는 박정환이 도전자다. 박정환은 지난 17일 막을 내린 대회 본선 리그에서 8전 전승을 달리며 최고기사결정전에 진출했다.

신진서와 박정환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다. 국내 ‘투톱’으로 꼽히는 두 기사가 결승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18승 17패로 앞선다.

박정환은 “인공지능과 둔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처럼 무기력하게 패하지 않고 가진 실력을 모두 쏟아부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진서는 인공지능처럼 완벽한 바둑으로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박정환은 지난해 ‘남해 바둑수퍼매치 7번기’에서 신진서에 7전 전패로 패한 이쁜 기억이 있다.

신진서는 “박정환 9단이 올라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이기고 싶은 욕심은 남치지만, 상대가 8전 전승을 거두고 올라온 박정환 9단인 만큼 내 바둑과 외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념의 리턴 30일 열린 Wimbledon 테니스 여자단식 1회전 경기에서 미국의 코리 가우프가 영국의 프란체스카 존스를 상대로 온몸을 뽐으며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인 더 하이츠, 블라이스 스피릿, 웬디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4관	미드나이트
5관	과이어트 플레이스 2, 레일로드 워
6관	크루엘라
9관	인 더 하이츠, 다크 앤드 위키드 킬러의 보디가드 2
7관	씨네커를 발신제한
8관	씨네커를 미드나이트, 빛나는 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